

수 신 : 각 언론사 경제부 · 정치부 · 사회부 · 시민사회담당

발 신 :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(위원장 하상응,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)

담 당 : 경실련 정치입법팀(서희원 팀장, 임정택 간사)

제 목 : [성명]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 추진 발
표에 대한 입장 (총 2매)

보도일자 : 2024. 02. 05. (월)

배포일자 : 2024. 02. 05. (월)

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,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?

-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,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
- 더불어민주당은 ‘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’ 약속하라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(2월 5일) 선거제 관련 ‘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’ 입장을 발표했다.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,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. <경실련>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,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,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.

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.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‘게임의룰’이라는 점에서,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,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.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,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,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.

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‘준연동형 선거제 유지, 비례연합정당 창당’ 방침을 발표했다.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,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.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

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.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‘민주당 외곽조직’ 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,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면 해도,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·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.

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,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4년 전 어렵게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으로, 대단히 우려스럽다. 연동형 선거제도는 지역구와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해, “지역구에서 기득권에 밀려 정당득표를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좀 더 배분해주자” 는 취지인데, 거대 양당이 별도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면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배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.

게다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 민주주의도 훼손한다. 「정당법」 제2조는 “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” 고 규정하고 있는데, 위성정당은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, 거대 양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, 정당의 계속성 및 공고성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 위성정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을 결여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.

이미 이재명 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하는 등의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.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도 계파와 상관없이 ‘위성정당 금지’ 와 관련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. 이러한 위성정당 금지 요구에 침묵하던 이재명 당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.

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정당은 비례 의석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‘위성정당 방지법’ 을 통과시켜 4년 전 더불어민주당,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한다. 그리고 국민 민심 잡기 위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 약속하고 있는 국민의힘, 더불어민주당은 “비례연합정당을 포함한 위성정당 미창당” 부터 약속하길 바란다. “끝” .